



눈썰매장 동심은 즐거워

휴일인 28일 광주패밀리랜드 야외튜브 눈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가족과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인가 대안학교 우후죽순... 대책없는 관리감독

광주·전남 학업중단 3000여명 이용 불구 법적 규정 없어 부실 운영 일쑤... 실태 파악·정책적 지원 등 양성화 필요

‘대안학교’라는 이름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억압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들 미인가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정이 없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수의 한 미인가 시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맞물려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안교육 전문가들은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지원 등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지역 미인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은 매년 3700여명(광주 2000여명, 전남 1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500명 가량은 해외유학 또는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그만두는 경우다. 나머지 3200여명은 억압적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경우다. 이들은 대부분 대안학교에서 자연친화적 체험활동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학업 중단 학생이 늘면서 대안교육시설도 크게 늘고 있다. 대안교육시설은 크게 인가형과 비인가형으로 분류된다.

인가형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대안학교로 일반학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된다. 반면, 비인가형은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강진의 늦봄문인학교, 화순의 지오학교, 광주의 교육공간 옴 등이다. 광주·전남에는 이 같은 대안교육시설이 1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규모가 크데다 프로그램도 특화돼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문제는 소규모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다. 이들 소규모 시설은 알음알음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시설도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지인들끼리 홈스쿨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대안교육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

다”며 “이들 시설은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한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조그마한 동네 학원·교습소도 등록을 통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는데 대안교육시설은 그렇지 못하다”며 “신고제·등록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지역 모든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불법 민간교육시설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과외체험학습·교과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초등 1·2학년 내년부터 중간·기말고사 안 본다

내년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1·2학년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초등학교 1·2학년 일제고사(중간·기말고사) 폐지, 3~6학년 일제고사 최소화 등을 담은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공교육 시작 단계부터 경쟁·차별·소외감 등 시험의 역기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제식 지필평가를 없애는 대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 성장중심상시 평가(포트폴리오, 관찰, 질문지, 서술형 평가 등 수행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승원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혁신학교는 2~3년 전부터 일제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개선했다”며 “이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적용해 획일적이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 신대지구 용도 변경 시행사 대표·공무원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S사 대표 이모(40)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3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대지구 내 공공용지 3만759㎡에 원룸, 오피스텔 등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인접 땅값이 급등, 건설사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서 초등생 체벌로 사망 불법 체험시설 운영자 구속

불법 민간 체험시설 운영자가 체벌 끝에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8일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여수 민간 생태체험 교육시설 관계자 황모(여·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새벽 여수시 화양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생태예술체험장에서 A(12)양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

방 절도 사건과 관련, A양을 의심하고 추궁하다 부모 동의를 받아 생태체험장으로 데리고 가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체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황씨가 체벌 도중 A양이 쓰러졌음에도 방치하다가 다음날 새벽에야 119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해당 체험장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나 학원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를 개조해 ‘생태예술 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온 것을 확인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직권남용 공모 교장 바꿔달라”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교장을 바꿔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공식 요청에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의 한 영재학교인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과 23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교장 B씨의 교체 요구안’을 결정한 뒤 광주시교육청에 ‘공모교장 인사 조치 및 감사 요청서’ 제출과 함께 면직을 공식 요청했다.

교장 공모 주чин인 학운위가 공모 교장을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 등이 제왕적 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으나, 공모 교장을 직접 선택한 학운위가 교장직 박탈을 요구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학운위는 광주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장 직권남용에 대해 정식 감사를 청구하고, 교사 29명을 포함한 교직원 30여 명이 동참한 서명서도 제출했다. 학운위가 제출한 자료집에는 B교장 재임시기인 지난 2년간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10건과 교장 직권 남용과 부적절한 행정업무 지시 5건 등 모두 15건의 사례가 담겨있다.

B교장보다 연장자인 C교사는 지난해 8월 토요일로 근무 운영 문제와 관련해 B교장의 무리한 업무 요구에 몇몇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가 거친 반말을 듣고서는 자괴감을 견디다 못해 올해 다른 학교로 전출했다.

D교사는 탄력근무시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교장으로부터 “이렇게 정규직이

어렵다. 그날 일용직을 쓰고 싶다”는 비하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은 이 밖에도 잦은 의심에다 예산 낭비, 황당한 총복몰이, 중요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거나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업무 혼선과 업무량 가중을 초래한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교장 B씨는 “영재학교로 새로 시작하다보니 교직원들의 희생이 많이 요구됐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도소 보내줘” 경찰서에서 행패

○-무전 취식 혐의로 조사받던 중 “구속시켜 달라”며 경찰서 집기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결국 절장 신세.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51범인 오모(48)씨는 성탄절인 25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삼부지구 모 주점에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셨다가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돌연, 경찰서 컴퓨터 모니터를 내동댕이쳐 부숴버린 것.

○-서달며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오씨는 잦은 수감 생활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주위를 피해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무전취식으로 교도소에 못 간다면, 경찰서 물건을 부수면 갈 수 있는 거냐”고 소리 친 뒤 범행을 감행. /김철호기자 kh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